

# “내 딸·내 아들이...여전히 보고 싶구나”

세월호 9주기 선상 추모식...사무치는 그날의 슬픔

유가족·구조 잠수사 등 진도 맹골수도서 눈물 속 현화  
아이들 간데 없고 ‘세월’이란 노란색 부표만 덩그러니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없는 ‘9년 허송세월’에 울분만

“역겹던 시간 흐른다고 잊을 수 없는 내 딸·아들이 다시 4월이 왔지만, 여전히 보고싶구나”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을 떠난 아이들이 차가운 바다 속에 갇혀 돌아오지 못한 지 벌써 9년이 됐다. 하지만 야속한 바다를 찾은 부모들의 사무치는 애절함과 슬픔은 해가 거듭될 수록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담당한 3번째 국가조사기구인 사회적조사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해 조사 활동을 마무리했지만 세월호 침몰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해 책임자 처벌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부모들은 아이들의 낯조차 달래지 못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해내고 있다.

제 9주기 세월호 선상추모식이 열린 9일 오전 7시 목포시 죽곡동 목포해양경전충부두. 새벽 2시부터 안산에서 새벽길을 달려 목포를 찾은 유가족들은 배에 탑승하기 전부터 무거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1년에 단 한 번 떠나버린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지만 동시에 가장 맞이하기 싫은 날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유가족 20명, 생존자 학생 1명, 민간잠수사 2명을 비롯한 4·16재단 관계자 등 71명은 이날 오전 7시께 해경 경비함정 1509호(1500t급)에 탑승해 사고해역인 진도 맹골수도로 출항했다.

이들은 세월호를 상징하는 노란색 패딩과 바람막이 등을 입고 배에 탑승했다. 3시간여 긴 시간 동안 96여km(52마일)를 항해해 도착한 진도군 조도면

맹골수도 앞바다에는 사고현장을 보여주는 ‘세월’이 적힌 노란색 부표만이 덩그러니 바다에 떠 있었다.

추모식은 차분하며 먹먹하고 조용했다. 예년처럼 오열하는 유족은 없었지만, 1년에 한번 오는 사고현장을 눈에 담으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였다.

현화가 시작되자 유가족들은 그리운 아이들에게 국화꽃을 바다 위로 흘려보냈다. 물결 속에 담긴 꽃은 모습을 드러내다 곧 사라졌다.

배는 참사 해역을 중심으로 수바퀴 돌았다. 한참 동안 바다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던 한 유가족은 노란 부표가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속으로 울음을 삼켜냈다. 눈가는 붉어졌지만 소리내 울진 않았다.

한 컨에서 먼 바다를 지켜보던 유가족도 조용히 손으로 눈가를 훔쳤다. 그래도 삼켜지지 않은 눈물은 마스크 속으로 흘러내렸고 연신 마스크를 벗었다 써야 했다.

또 다른 유가족은 멀어져 가는 노란 부표를 보며 손을 흔들며 보였다. 부표가 눈 앞에서 사라지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날 이후 보지 못하게 된 가족에게 다녀간다고 인사하는 듯했다.

단원과 2학년 고(故) 김수진양의 아버지인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9년이 지났지만 보고싶고 안아주고 싶고 맛있는 것 해 먹고 싶은 마음은 여전하다. 참사현장은 오고 싶지 않은 곳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꼭 와야 하는 슬



세월호 유가족들이 9일 진도군 조도면 맹골수도 앞바다에서 열린 세월호 9주기 선상추모식에서 아이들을 그리워하며 바다를 보고 있다.

픔과 아픔이 공존하는 곳이다”며 “무엇하나 밝혀진 것 없는 답답한 상황이지만 책임자를 밝혀내 처벌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선상추모식에 함께한 단원과 생존학생 한명은 가족과 부두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9년 전 그날을 떠올리고 기억했다.

이날 선상추모식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잠수사로 활동했던 이들도 유족들과 그날의 슬픔을 함께 나눴다.

세월호 발생 이후 5년만에 해역을 방문한 김상우(52)잠수사는 “당시 좁은 객실에서 아이들을 많이 찾았다. 아직도 얼굴이 하나하나 생각이 난다. 찾아

와서 한번 보고 싶어 오게됐다”며 “과거 서해 페리호 사건때는 손쓸 수 없이 배가 침몰했지만 세월호는 1시간 이상 학생들과 일반인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 당시 세월호 침몰개방 작업을 한 배상웅(46)잠수사도 이날 배에 올라 “사건 이후 처음 해역에 방문하지만 당시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냄새와 음식, 색깔이 또렷하게 느껴진다”며 “이번 이태원 참사는 세월호 참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의 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해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상추모식을 마친 뒤 세월호 선체가 보존돼 있는 목포신항에서는 오후 2시 30분께 선체추모식이 이뤄졌다. 짧지 않은 시간동안 인양과 보존까지 풍파를 거친 세월호는 녹슬고 부식됐지만 ‘세월’ 두글자는 선명하게 각인돼 있었다.

한편, 광주에서는 14일부터 16일까지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는 분향소가 설치되고, 15일부터 16일까지는 광주에서 출발해 경기도 안산으로 향하는 ‘다함께 안산까지’ 행사도 개최된다.

/진도 글·사진=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 5·18 ‘전우원 효과’

광주 5·18 기록관·민주묘지 등 대학생·타지역민 방문 급증

전두환 손자 전우원(27)씨의 광주방문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씨의 사죄행보 후 5·18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이들과 부채감이 있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학생들의 방문이 잇따르면서 일명 ‘전우원 효과’가 5·18 전국화·세계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기록관(기록관)과 국립5·18민주묘지(민주묘지) 등에 따르면 전씨의 사죄행보 후인 지난 달 31일부터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전일빌딩245, 국립5·18민주묘지 등 5·18 관련 관광·사적지에 방문객이 크게 늘었다.

기록관과 전일빌딩의 3월 31일 일일 방문객은 총 459명으로, 3월 중 일일 평균 방문객 176명에 비해 2.6배 증가했다. 4월에도 증가세는 이

었다. 집계가 이뤄진 2일까지 492명(4월 1일) → 349명(2일) 등 연일 300~400여명씩 몰리고 있다.

민주묘지 참배객도 부쩍 늘었다. 3월 하루 평균 참배객은 207명 수준이었지만, 지난달 31일에는 606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주말 방문객도 늘어나 토요일인 3월 25~26일 410명에 그쳤던 방문객이 4월 1~2일 941명으로 1주일만에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5·18민주묘지 관계자는 전씨 방문 이후 타 지역민들의 방문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달 31일 이후 5·18민주묘지 방문객에는 서울, 제주, 파주, 부산, 전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찾아온 이들이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하다”며 열사의 명복을 비는 글을 잇따라 남기기도 했다.

경북지역 대학생들이 광주를 찾기도 했다. 영남대에서 김문주 교수가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지원을 받아 개설한 ‘공정과 평화로 가는 길’ 강의 듣는 학생 40여명은 지난 8일 5·18기념재단의 안내를 받으며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홍인화 5·18기록관장은 “전우원 효과로 5·18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코로나 안데믹과 초·중·고 체험학습 시즌까지 맞물려 광주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이번호 계기로 전국의 더 많은 이들이 5·18을 알게 되고 민주영령들의 뜻을 되새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씨는 10일부터 당분간 광주에 상주하면서 사죄행보를 이어 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까지 5·18기념재단이나 공법 5월 3단체와의 만남이나 일정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

## 43주년 5·18 기념행사 참여단체 27개 선정

5·18민주항쟁기념행사위원회(이하 행사위)는 오는 6월까지 제43주년 5·18 기념행사에 참여할 단체를 공모한 결과 총 27개 단체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오월을 주제로 한 각종 여행·투어 사업이 다수 선정됐다. ‘5·18민족통일학교’의 사적지 역사기행, 시민단체 ‘플랫폼C’의 오월항쟁 역사기행, 예비교사 네트워크 ‘플릭’의 전국 교육대학생 광주 5·18역사교육캠프 등 사업이

선정 대상에 올랐다.

또 오월 정신을 계승하는 뮤지컬 ‘비망’, 5·18을 기억하는 대학생 뮤지컬 ‘님을 위한 행진’, 들불야학 7인 추모예술제 등 공연도 광주 곳곳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광주에 거주하는 고려인 청년들도 해외 고려인 예술단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플래시몹 ‘사운드 오브 메이’를 공연한다.

전체 수상작은 행사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병역판정검사 14일부터

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김우무)은 “2023년도 첫 병역판정검사를 오는 14일부터 7월 26일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2004년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 연기가 해소된 사람 등 1만 6000여 명이다.

검사 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병무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검사 일자와 장소 선택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 가까운 지방병무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13일까지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교체에 따라 전국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이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이 기간 중에는 병역처분변경 신청 접수만 가능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